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385.40원에 마감

2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0.40원 상승한 1,384.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40원 상승한 1,384.2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보험권에서 횡보했으나 코스피 하락, 외국인순매도 규모 확대 등에 상승 전환했다. 다만, 오후장에서 환율은 아시아 통화 강세, 달러 매도 압력 심화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며 1,384.2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6.5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4.20	1388.20	1379.20	1385.40	1385.40
엔화	899.10	911.13	895.93	899.87	-	
유로화	1499.98	1504.54	1495.61	1502.4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9	-5.51	-13.49
결제환율(수입)	0	-4.7	-11.81	-24.0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회피심리 확산에...1,38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4.20) 대비 1.45원 하락한 1,385.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견조한 미국 GDP, 위험회피 심리 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 2.8% 성장하며 예상치 2.1%를 크게 상회했다. 달러화는 양호한 미국 경기를 반영하며 상승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달러 강세는 제한되었고, 달러지수는 전일대비 0.05% 상승한 104.4선에서 마감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기술주 조정이 이어지며 나스닥 및 S&P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이에 한국 증시도 미국 AI, 반도체 관련주 조정으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원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역대 저가매수와 역외 투자자의 위험회피성 달러 매수가 더해진다면 환율 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월말 네고 등은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79.33 ~ 1387.67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785.2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45원 ↓
	■ 美 다우지수 : 39935.07, +81.2p(+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4.0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99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